

상담자들의 사회정의 옹호역량 발달 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이재복¹⁾ 장소정²⁾ 김영신³⁾ 남목민⁴⁾ 조훈제⁵⁾ 이수정⁶⁾ 연규진^{7)*}

¹⁾⁴⁾⁵⁾서강대학교 심리학과 / 석사졸업

²⁾런던정치경제대학교 사회 및 문화심리학과 / 석사졸업

³⁾서강대학교 심리학과 / 석사수료

⁶⁾서강대학교 심리학과 / 박사과정생

⁷⁾서강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본 연구는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국내 상담자의 사회정의 옹호역량 발달 과정에서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정의 옹호역량 수준이 높고 암묵적 성 고정관념 수준이 낮은 상담자 9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6개의 영역, 즉 “사회정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옹호역량 증진 과정”, “옹호 추구 과정에서의 어려움”, “사회정의 활동상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 “사회정의 추구 후 삶의 변화”, “사회정의 옹호 상담 발전을 위한 제언”과 22개의 범주, 그리고 18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참가자들은 교육과 다양한 경험을 계기로 사회정의에 관심을 가졌으며, 지식 추구하고 옹호 활동 실천, 개인적 성찰, 멘토의 도움을 통해 옹호역량을 증진하였다. 이들은 여러 가지 내외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고정관념에 대한 성찰, 문제 제기, 동료들과의 교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려움에 대처하였다. 또한, 사회정의를 추구하면서 실제로 사회구조 및 개인적 삶 속에서 변화 등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였다.

주요어 : 사회정의, 사회정의 옹호 상담, 사회정의 옹호역량, 다문화 상담, 합의적 질적 연구

* 본 연구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8036468).

† 교신저자 : 연규진,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0410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다산관 336호

Tel: 02-705-8327, E-mail: kjon@sogang.ac.kr

서론

성별, 인종, 민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 정신 및 신체 능력 등 사회 구조적으로 소수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들은 차별 경험으로 인해 주류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만성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인서, 김승섭, 2015; Meyer, 2003; Pascoe & Smart Richman, 2009; Schmitt, Branscombe, Postmes, & Garcia, 2014). 즉,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소수 집단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정신건강에 취약할 수 있고 따라서 심리적 도움을 더 필요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상담심리학은 사회 구조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적 역동을 이해하고 개인 내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데 집중해왔다(임은미, 강혜정, 구자경, 2018). 뿐만 아니라, 상담심리학은 전통적으로 백인 중심의 개인주의적 가치를 기반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편향되어 있을 수 있다(Ivey, Ivey, Myers, & Sweeney, 2005; Ponterotto, Utsey, & Pedersen, 2006; Ridley, 2005). 따라서 전통적 패러다임에 국한된 상담 및 심리치료는 소수 집단 내담자를 적절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억압과 차별을 반복하는 문제를 지닐 수 있다(Cokley, 2005). 예를 들어, 상담자가 문화적으로 둔감한 경우, 내담자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적인 평가, 진단, 처치를 하거나(Sue, Sue, Neville, & Smith, 2019) 상담 과정에서 미묘한 차별을 보임으로써 치료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Owen, Tao, & Rodolfa, 2010). 소수 집단 내담자들은 이러한 심리치료

의 편향된 특성으로 인해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거나 조기에 종결하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Kearney, Draper, & Barón, 2005).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 상담 패러다임의 한계를 비판하며 새로운 상담 패러다임으로써 ‘제 5세력(Fifth force)’이라 불리는 사회정의 옹호 상담(Social Justice Advocacy Counseling)이 대두되고 있다(Ratts, 2009). 이에 따라 국내외 연구자들은 수퍼비전(Chang, Hays, & Milliken, 2009; Glossoff & Durham, 2010)과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회정의 옹호 상담자 양성 방안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해왔다(이소연, 서영석, 김재훈, 2018; 임은미, 2015; 정지선, 2020; Rice, Girvin, Frank, & Foels, 2016; Steele, 2008). 특히, 최근 한국 사회가 급격히 다문화화 되어가면서 사회정의 옹호역량은 국내의 많은 상담자들이 갖춰야 할 중요한 역량이 되고 있다(임은미, 2017; 최가희, 2018).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정의 옹호 상담자 양성을 위한 국내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관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임은미, 2015; 정지선, 2020; 최가희, 2018).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상담자들의 사회정의 옹호역량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구축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사회정의 옹호역량이 높은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옹호역량 발달 과정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사회정의 옹호 상담은 다문화 상담의 관점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다문화 상담에서는 소수 집단 내담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내담자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문화적 맥락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Sue et al., 2019). 더 나아가, 사회정의 옹호 상담에서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억압 및 차별적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상담자들이 직접 사회정의 옹호 활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Mallinckrodt, Miles, & Levy, 2014). 상담자의 사회정의 옹호란, 상담자가 소수 집단 내담자의 문제를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더 나아가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철폐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Lee, 2007).

Lewis, Arnold, House와 Toporek(2003)에 의하면 상담자의 사회정의 옹호 활동은 내담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유발하는 억압적인 사회구조의 영향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는 것부터 억압적 환경 속에서 내담자의 통제력 향상을 위해 역량을 강화(empowerment)하고, 실제적인 사회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참여 활동(social action)까지 매우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이는 사회정의 옹호 상담에서 개입하고자 하는 범위가 내담자 개인을 넘어 내담자가 속해 있는 가정, 학교, 지역 공동체, 사회체계와 같은 거시적인 수준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상담자가 상담실 안에서 만나는 내담자 개인 뿐만 아니라 상담실 밖에서도 내담자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를 개입 대상으로 인식하고, 관련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윤리적인 사회정의 옹호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사회정의 옹호역량이라 한다(Toporek, Lewis, & Crethar, 2011).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상담자의 사회정의 옹호역량은 상담자의 상담역량 및 상담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담자의 사회정의 옹호역량은 치

료적 개입을 용이하게 하고(구자란, 2010), 상담자의 발달 수준 및 내담자와의 작업동맹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상담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진, 권경인, 2019). 임은미 등(2018)은 소수집단 내담자와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상담에서 강조하는 일반적인 상담역량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 접근부터 개인을 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개입하는 다문화 상담역량, 그리고 실천적으로 억압적인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사회정의 옹호역량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임은미 등(2018)은 상담자와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담자의 상담역량이 일반 상담역량, 다문화 상담역량, 사회정의 옹호 상담역량의 위계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상담심리학계의 상담자 교육 및 훈련 과정은 전통적 상담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일반적 상담역량을 증진하는 것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임은미 등(2018)의 연구 결과는 한국 상담심리학계가 상담자들의 다문화 및 사회정의 옹호 상담역량 증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미국상담학회(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ACA)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정의 옹호 상담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2003년 옹호 모델을 채택하고 상담자의 사회정의 분과(Counselors for Social Justice)를 인준하면서 본격적으로 상담자의 옹호 활동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Lewis et al., 2003). 이후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상담자들의 사회정의 옹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담자 교육 및 훈련 과정에도 사회정의 옹호역량 증진을 위한 프

로그래를 포함시키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Goodman et al., 2004; Lee, 2007; Mallinckrodt et al., 2014). 특히, Mallinckrodt과 동료들(2014)은 전통적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자의 교육 패러다임으로써 활용되던 과학자-상담자 모델(scientist-practitioner model)에서 사회정의 옹호를 상담자 역할로 포함하는 과학자-상담자-옹호자 모델(scientist-practitioner-advocate model)로의 이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일례로 미국 테네시 대학에서는 이미 본 모델을 기반으로 상담심리학 박사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 상담심리학계에서도 최근 들어 억압적인 사회구조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내담자들에게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 상담 패러다임을 넘어 상담자의 역할로써 사회정의 옹호 관점과 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미진, 권경인, 2019; 구자란, 2010; 이소연 외, 2018; 임은미, 2015; 정지선, 2020).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회정의 옹호에 대한 상담자들의 관심과 인식이 부족하고, 일반적인 상담역량을 넘어 다문화 상담 및 사회정의 옹호 상담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임은미, 2015; 정지선, 2020; 주은선, 이현정, 2010; 최가희, 2018).

그러나 실제 상담 현장에서 상담자들은 이미 이주 노동자, 탈북민, 여성, 노인,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영향을 받고 있는 다양한 소수 집단 내담자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정의 옹호역량의 함양을 요구받고 있다(임은미, 2015; 임은미, 구자경, 2019). 사회정의 옹호 상담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사회, 기관 혹은 내담자로부터 관련 역량을 요구받

게 될 경우, 상담자는 상담자로서의 역할 갈등 및 정체성 혼란 뿐만 아니라 심리적 소진 등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이소연 외, 2018; 임은미, 구자경, 2019; 주은선, 이현정, 2010). 뿐만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소수 집단 내담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사회 구조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개입하지 못하게 되면, 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차별이 상담 내에서 재현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상담자로서의 윤리적, 사회적 책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Toporek & Williams, 2006). 즉, 사회정의 옹호 역량을 필요로 하는 상담 현장에서 상담자가 자신의 책무를 다하고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들의 사회정의 옹호 상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관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구축 등 구조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국내 선행연구들은 사회정의 옹호 상담자 양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퍼비전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하거나(이소연 외, 2018; 임은미, 2015; 정지선, 2020)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 사회정의 옹호 상담이 상담 성과 및 상담역량에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김미진, 권경인, 2019; 임은미 외, 2018).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정의 옹호 상담자 양성 방안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사회정의 옹호역량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상담자들의 역량 발달 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기초적인 탐색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의 상황에서 본 연구는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옹호 상담자 양성 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제 상담 현장에서 높은 사회정의 옹호역량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는 상담자들의 발달 과정에서의 경험에 관심을 갖고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사회정의 옹호역량이 높고, 암묵적 성 고정관념 수준이 낮은 국내의 상담자들을 선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암묵적 수준의 성 고정관념을 선별 기준에 고려한 이유는 참가자들 중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사회정의 옹호역량을 높게 보고한 상담자를 배제하고, 실제로 높은 옹호역량을 갖춘 상담자를 선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회정의 옹호역량은 자기보고식 척도로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 역량이 아닌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가장된 응답일 가능성이 있으나, 암묵적 성 고정관념은 성별에 대한 암묵적인 수준의 태도와 관련되어 의도적으로 응답을 가장하기가 어렵다(Rudman, Greenwald, & McGhee, 2001). 더불어, 실제로 높은 사회정의 옹호역량을 갖춘 상담자들은 여성주의적 관점을 사회정의 옹호 활동의 핵심 요소로 보고하고 있으며(Sumner, 2013), 선행연구에서도 사회정의 옹호와 여성주의는 이론적으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Brady-Amoon, 2011; Crethar, Rivera, & Nash, 2008). 특히, 암묵적 수준의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편견을 자각하고 탈피하고자 꾸준히 훈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Schnierle, Christian-Brathwaite, & Louisias, 2019)에서, 본 연구에서는 의식적 수준뿐만 아니라 암묵적 수준에서도 높은 옹호역량을 갖춘 상담자들의 역량 발달 과정에서의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사회정의 옹호역량이 높고, 암묵적 성 고정관념 수준이 낮은 국내의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정의 옹호 상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일련의 사회정의 옹호역량 발달 과정, 그리고 실제 상담 장면에서 어떻게 옹호 활동을 실천

하고 있는지를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이유는 본 연구 방법이 새로운 연구 분야를 탐색하는 데 유용하며(Santiago-Rivera, Altarriba, Poll, Gonzalez-Miller, & Cragun, 2009), 연구대상의 개인적 경험이나 과정에 대한 심층적 탐구를 진행하는 데 효과적인 연구 방법이기 때문이다(권경인, 양정연, 2013; Hill, Thompson, & Williams 1997).

방 법

연구 참가자 선별 기준 및 방법

본 연구는 사회정의 옹호역량이 높고 암묵적 성 고정관념이 낮게 측정된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합의적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참가자는 상담관련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의 온라인 홍보 게시판과 상담심리학 대학원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모집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상담자 태도 및 역량과 사례 이해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 의사를 표명한 경우, 성별, 나이, 상담경력, 거주 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기본 정보를 기입하고 상담자들이 온라인 설문을 참여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173명 중 질적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사회정의 옹호역량(임은미, 2017)이 상위 33%,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Rudman et al., 2001)로 측정된 암묵적 성 고정관념이 하위 33% 이내인 상담자들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선정된 상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연구 목적 설명과 함께 인터뷰 참여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총 9명의 참가자

가 인터뷰에 응하였다. 참가자들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20분 동안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서강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후 진행되었다(SGUIRB-A-1810-65-2).

측정도구

사회정의 옹호역량 척도

참가자들의 사회정의 옹호역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임은미(2017)가 개발한 한국 상담자를 위한 사회정의 옹호역량 척도(Social Justice Advocacy Competence Scale for Korean counselors: SJACS-K)를 사용하였다. 사회정의 옹호역량 척도(이하 SJACS-K)는 내담자 역량강화, 환경 변화 필요 인식, 상담자 사회참여 세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24개 문항에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정의 옹호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임은미(2017)의 연구에서 SJACS-K의 Cronbach α 는 .91-.94로 높았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1-.78로 양호했다. 각 요인별 Cronbach α 는 내담자 역량강화 .91, 환경변화 필요인식 .92, 상담자 사회참여 .94였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순서대로 .72, .78, .78이었다. 본 연구에서 요인별 Cronbach α 는 내담자 역량강화 .91, 환경변화 필요인식 .90, 상담자 사회참여 .94였다. 또한,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총 173명의 사회정의 옹호역량 평균 점수는 3.68, 표준편차는 .54이었다.

Power-Warmth IAT

암묵적 성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해 Rudman과 동료들(2001)이 개발한 Power-Warmth

IAT를 번역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본 연구자들이 Rudman 등(2001)이 개발한 30개의 단어를 번역하였다. 이어서 국내 대학생들(남성=32명, 여성=3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여 각 단어가 얼마나 남성적/여성적으로 지각되는지 각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평균 점수가 4점보다 낮은 단어는 삭제하였으며 상위 각 8개 단어를 최종 선정하였다(Power=정력적인, 힘, 강력한, 지배적인, 튼튼한, 명령, 용감한, 소리가 큰; Warmth=양육, 상냥한, 따뜻한, 다정한, 사랑, 배려하는, 친절함, 순함). 본 연구에서 Power-Warmth IAT의 내적 합치도는 .80이었으며, 효과 크기(Cohen's d)는 1.88이었다. 또한, 설문에 참여한 총 173명의 평균 점수는 .69, 표준편차는 .37이었다.

연구참여자 특성

인터뷰에 참가한 9명의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만 34세, 성별은 여성 8명, 논바이너리 1명이었다. 참여자들의 평균 상담경력(5년 4개월)이었고, 상담 관련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참가자 7명,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참가자 1명, 자격증을 소유하지 않는 참가자는 1명이었다. 참가자들의 최종학력 및 전공, 현재 소속 기관 유형 등을 포함한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인터뷰 절차 및 내용

인터뷰는 연구팀의 합의를 거쳐 구성된 주요 질문과 추가적인 세부 질문으로 이루어진 면접 프로토콜로 진행됐다. 본 인터뷰에 앞서 사회정의 옹호역량에 관심이 있는 3명의 상담

표 1. 연구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례	성별	연령	암묵적 성고정관념 (z 점수)	사회정의 옹호역량 (z 점수)	최종학력	최종학력 전공	상담경력	현재 소속 기관
1	여	28	-3.09	0.98	석사졸업	상담교육	1년 6개월	기업
2	논바이 너리	32	-2.31	2.44	석사졸업	상담심리	5년 9개월	사설상담소
3	여	24	-3.99	1.29	석사수료	상담심리	3개월	대학상담소
4	여	41	-0.90	1.21	박사수료	상담심리	15년	청소년 상담센터
5	여	50	-1.03	1.75	석사졸업	청소년교육	5년 8개월	위클래스 센터
6	여	30	-1.56	2.43	석사졸업	상담심리	3년	대학상담소
7	여	40	-2.29	0.60	박사졸업	상담심리	10년	대학상담소
8	여	32	-0.41	0.90	석사졸업	상담심리	5년 7개월	대학상담소
9	여	30	-0.76	1.29	석사졸업	상담심리	2년 4개월	현재무소속

표 2. 인터뷰 주요 질문

질문 번호	질문 내용
1	사회정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2	사회정의에 관심을 갖게 되신 후, 지금의 관점과 역량을 갖추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치셨나요?
3	사회정의에 관심을 갖고 역량을 키워오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4	선생님께서 상담자로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나요?
5	한국에서 더 많은 상담자들이 사회정의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수련생을 대상으로 3차례 예비면담을 실시하여 질문 및 순서를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 최종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최종 프로토콜의 주요 질문은 표 2에 제시했다. 인터뷰 실시 전에 참가자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통해 인터뷰

주요 질문들과 사회정의 옹호에 대한 정의와 예시를 공유하여 답변을 미리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연구 참여 동의서와 연구 윤리에 대한 내용도 함께 안내하였다. 인터뷰는 연구팀(상담심리 전공 대학원 박사과정생

1명, 석사 과정생 3명, 석사 1명, 그리고 사회심리학 전공 석사 1명)이 나눠서 진행하였다. 모든 면접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화상으로 실시되었고, 평균 인터뷰 시간은 69분이었다. 면접자 요인 최소화를 위해 모든 면접자들은 인터뷰 진행 이전에 면접 진행 방법에 대해 감수자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또한, 이전 인터뷰 연구 경험이 없었던 면접자들은 경험이 있는 면접자가 실시하는 인터뷰에 보조 면접자로 참관하였고, 예비면담 녹음 파일을 청취하고 축어록을 윤독하는 과정을 거쳐 면접자 역할을 숙지했다. 인터뷰 진행에는 연구 참여자 한 명당 두 명의 면접자가 할당되었으며, 같은 면접자 조합이 반복되지 않도록 짝을 맞추어 진행했다. 모든 면접자들은 사전에 구성된 면접 프로토콜에 따라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면접 진행 전 프로토콜 질문에 대해 면접자들이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Hill과 동료들(1997)이 제안한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CQR은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개인의 경험을 풍부하게 탐색하고 이해하기 위한 연구 방법이다. 그러므로 사회정의 옹호역량이 높고 암묵적 수준에서도 편견이 낮은 상담자들이 거쳐 온 역량 발달 경험을 탐색하는 본 연구에 CQR이 적합한 연구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분석을 위해 앞서 분석한 내용을 팀원들과 공유하며 반복해서 합의 과정을 거쳐 진행하였다. 합의한 내용은 내부 감수자에게 검토받고, 감수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연구팀 내에서 합의 과

정을 통해 수정 작업을 거쳤다. 수정 작업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는 분석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연구 참가자 9명에게 전달하여 인터뷰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 특별한 수정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참가자 전원이 분석 결과를 확인하였다고 응답했다.

연구자의 편견 및 기대 처리

본 연구에서는 연구팀을 이뤄 자료를 분석했다. 이 중 박사과정생은 CQR 분석 경험이 있었다. 내부감수자는 CQR 연구 진행 경험과 감수 경험이 있는 상담심리 전공 교수로, 박사과정생과 함께 분석방법에 대해 교육하며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예비면담 데이터로 예비 분석 실습 과정을 2회 진행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합의 과정을 연습했다. 합의 과정에서 어느 한 연구자가 주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두에게 발언권이 주어졌으며, 다수가 동의하는 바에 따라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분석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Hill과 동료들(2005)이 제안한 바에 따라 연구팀 각자의 편견과 기대를 작성하여 공유하고, 인터뷰 진행 과정 및 결과 분석 과정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사회정의 옹호에 대한 연구팀원들의 기존의 인식과 관심의 정도는 다양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자는 사회정의 옹호라는 개념에 대해 상대적으로 생소하게 느끼고 있어, 연구자로서의 정확한 개념 이해와 분석을 위해 연구 준비 단계부터 꾸준히 학습하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제기하여 익숙하지 않은 부분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다른 한 연구자는 사회정의

옹호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실제 옹호 활동에 대해서는 흥미와 경험이 적었고, 사회정의 옹호역량이 높은 상담자들은 진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사회정의를 위해 많은 활동을 실천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 연구자는 사회정의 옹호 활동을 상담자의 중요한 역할로 보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사회정의 옹호를 위한 실천적 활동 이외의 추구 노력에 대해 평가 절하하지 않도록 분석 시 유의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다른 한 연구자의 경우, 사회정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상담자가 사회정의 옹호를 추구하는 것을 필수적이라 생각하는 등, 다소 높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연구 참가자의 응답 중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자들은 자신의 사회정의에 대한 다양한 태도와 선입견 등이 인터뷰와 분석 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함께 성찰하고 논의했으며, 분석과 합의 과정에서도 각자의 기대를 되돌아보며 객관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영역(Domain), 핵심내용(Core idea)
코딩, 교차분석(Cross analysis)

연구팀은 인터뷰 내용을 총 9개의 축어록으로 작성한 후 이를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Hill과 동료들(1997)의 제안에 따라 인터뷰 질문을 바탕으로 인터뷰 내용을 유사한 주제로 분류하였다. 총 6개의 영역을 잠정적으로 설정한 후, 감수자를 제외한 6명의 연구팀원을 각 영역에 3명씩 할당하여 핵심내용 코딩

작업을 하였다. 즉 1인당 3개의 영역을 코딩할 수 있도록 분배하였고, 이 과정에서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자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역별로 중복되는 팀원 조합이 없도록 골고루 배정하였다. 핵심내용이란 해석을 최소화하며 인터뷰 내용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요약한 내용이다. 코딩의 논의와 합의 과정은 감수자가 감독하면서 진행되었다.

핵심내용 코딩 작업이 끝난 후,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교차분석은 각 사례별로 유사한 핵심내용들을 잠재적으로 묶을 수 있는 범주를 도출한 후 전체 사례에서의 각 범주 당 빈도를 계산하는 작업이다. 각 소그룹은 영역별로 핵심내용을 검토하며 범주화 작업을 실시했다. 도출한 범주들에 대해 영역별로 논의 후, 전체 연구팀이 다 함께 범주와 영역 구분을 다시 검토하고, 범주, 영역에서 수정이 필요한지 논의하여 지속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범주화 작업에서도 객관성 유지를 위해 내부 감수자가 감독하며 진행되었다. 범주에 대한 합의가 완료된 후 각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핵심내용들을 식별하여 빈도수를 계산하였다. 모든 코딩 작업은 약 3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감수자 및 감수과정

연구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해 연구 분석 과정을 1명의 내부 감수자가 감수하였다. Hill과 동료들(2005)은 연구팀의 분석 내용을 확인하고, 집단적 사고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적어도 한 명의 감수자가 CQR의 필수적 요소라고 하였다. 범주의 조직화가 논리적이고 개념적인 의미를 지니는지, 자료의 본질을 나타내기 위해 더 나은 조직화 방법이 있는지, 핵심내용의 문구가 원자료 데이터의 본질을

간결하게 포착하고 교차분석이 자료를 충실하게 표현하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 감수자의 역할이며, 감수자는 단순히 연구팀의 분석 내용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념화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본 연구의 감수자는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QR 및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 CQR-M)을 사용한 6편의 연구를 국내외 학술지에 출판한 경험이 있으며, 이외에도 5개의 합의적 질적 연구에 참여하고 지도 및 감수한 경험이 있다. 내부 감수자는 본 연구의 논의 과정에 참석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감수자가 제공한 피드백을 기반으로 연구팀은 영역을 재조정하고 일부 범주명을 수정했으며, 최종적으로 더 유사하다고 판단된 일부 범주들을 다른 영역으로 통합하는 재조정 작업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예로, 초기 분석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보고한 어려움과 관련된 범주들이 ‘사회정의 옹호 활동’ 영역과 ‘사회정의 옹호역량 증진 과정’ 영역에 각각 포함되어 있었으나, 어려움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고 어려움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감수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해당 범주들을 ‘사회정의 옹호 추구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라는 독립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이외에도 감수자는 범주명이 다소 불분명한 경우에 범주 의미를 보다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표현 수정을 제안하였고, 연구팀은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결 과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6개의 영역과 22개의 범주, 그리고

18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범주 빈도는 Hill과 동료들(2005)이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 개정판에서 권고한 대로 빈도수 혹은 백분율로 표시하지 않고 “일반적(general)/전형적(typical)/변동적(variant)”으로 표기하였다. 전체 인원인 9명 또는 전체에서 한 명을 제외한 8명이 보고했을 때 “일반적(general)”, 절반 이상인 5명에서 7명이 보고했을 때 “전형적(typical)”, 4명 이하가 보고했을 때 “변동적(variant)”으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영역 1: 사회정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본 영역은 사회정의 옹호 상담자들이 최초로 어떻게 사회정의라는 개념을 접하거나 옹호에 관심이 생겼는지에 대한 범주를 포함한다. 연구 참가자들은 교육을 통해서, 혹은 차별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며, 혹은 내담자를 통한 계기로 사회정의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1.1 교육 및 수업을 통해 사회정의를 접함(변동적). 연구 참가자들 중에서 대학원 수업과 같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정의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경우가 있었다.

“처음 인식하게 된 건 대학원 수업 들으면서 ‘사회심리학’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여성주의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배우게 되면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고통이 그 사람 개인만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했고...” <참가자3>

표 3. 영역, 범주 및 하위 범주

영역	범주	하위 범주	빈도	
1. 사회정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1.1 교육 및 수업을 통해 사회정의를 접함		변	
			일	
	1.2 차별을 경험하거나 목격하며 문제의식을 느낌	차별을 직접 경험하며 불편감이나 불합리함을 느낌		전
		주변인의 차별 경험이나 사회적인 사건을 계기로 문제의식을 느낌		전
		동료 상담사나 슈퍼바이저의 차별적인 언행을 경험함		변
	1.3 소수자 내담자와의 상담 경험을 통해 관심을 가짐	내담자 문제의 사회 구조적 원인을 인식하고, 기존 상담 틀의 한계를 인식함		변
		내담자들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관심을 가지게 됨		전
	2. 사회정의 옹호역량 증진 과정	2.1 사회정의 옹호역량 증진을 위한 지식을 추구함	적극적으로 사회정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감	일
			적극적으로 사회정의 관련 공부나 연구를 함	변
			소속 기관에서 사회정의 관련 교육을 받음	일
			전	
2.2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멘토에게 방향성을 안내 받음			일	
2.3 개인적 성찰 과정을 거침			전	
2.4 상담 현장에서 사회정의적 관점으로 개입함			전	
2.5 상담 밖 사회정의 옹호 활동에 직접 참여함		사회정의 추구를 위한 모임을 개설하거나 참여함		일
		사회정의 추구를 위한 대외활동, 캠페인, 집회 등에 참여함		변
			일	
3. 사회정의 옹호 추구 과정에서의 어려움		3.1 사회정의 옹호역량 증진을 위한 외부 자원이 부족함	역할 모델이 부족함	일
			관련 교육 및 훈련이 부족함	전
			역량 개발을 위한 참고 자료가 부족함	일
			전	
	3.2 사회정의 옹호 상담자로서 현장에서 역경을 겪음	상담 개입 과정에서 구조적 한계를 느낌		일
		동료 상담자나 슈퍼바이저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경험함		전
	3.3 차별적이고 보수적인 사회문화와의 충돌을 경험함		일	
	3.4 개인 내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겪음	소수자에 대한 나의 편견을 자각함		전
		옳은 방향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겪음		변
		사회정의 옹호 과정에서 대리의상 및 소진을 겪음		변
4. 사회정의 활동상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	4.1 자신의 신념과 고정관념 성찰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함		변	
	4.2 사회정의 추구를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설득함		전	
	4.3 동료 및 멘토와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 힘을 얻음		전	
	4.4 개인적 대처 방안을 탐색하고 실행함		전	
5. 사회정의 추구 후 삶의 변화	5.1 긍정적인 사회 구조적 변화를 야기함		변	
	5.2 자신과 주변의 삶이 편안해지고 문제에 더 침착하게 대처하게 됨		전	
	5.3 사회정의 옹호에 대해 인식하고 전문적인 기준을 확립함		전	
6. 사회정의 옹호 상담 발전을 위한 제언	6.1 사회정의 상담 관련 교육 및 연구가 더 필요함		일	
	6.2 상담자들의 사회정의적 관점에서의 인식과 노력이 필요함		전	
	6.3 상담계 내부부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전	

주. 일=일반적 전=전형적 변=변동적

1.2 차별을 경험하거나 목격하며 문제의식을 느낌(일반적). 참가자들은 차별 경험이나 문제의식을 통해 사회정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직접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이 당하는 차별, 혹은 사회에 흔히 일어나는 차별을 목격하며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상담계 내에서 동료 상담자나 슈퍼바이저들의 차별적인 언행을 경험하면서도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한다. 본 범주는 세 가지 하위 범주로 세분화되었다.

1.2.1 차별을 직접 경험하며 불편감이나 불합리함을 느낌(전형적). 참가자들은 자신의 비주류성, 소수성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부터 차별받은 경험이 있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잘 속하지 못한다? 좀 다르다는 소수자성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성애자여서, 동성애자로서 억압 받았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너는 나랑은 좀 달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예를 들어 “너는 애가 좀 특이해”, “너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니”라는 말을 가족들이랑 성향이 좀 달라서 가족들로부터도 많이 들었고.” <참가자1>

1.2.2 주변인의 차별 경험이나 사회적인 사건을 계기로 문제의식을 느낌(전형적). 자신이 직접 당한 차별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던 소수자가 차별을 당하는 걸 목격하거나 소수성을 이유로 배척 받는 걸 목격했고, 이런 일들이 잘못됐다고 느끼며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혼혈인 친구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되게 왕따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당해 봐서 자기의 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그냥 한국인인 척하고 살아가는 것도 봤고. 그런 것들을 곳곳 이제 보다 보니까, 뭔가 좀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편견이나 선입견 이런 거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참가자9>

1.2.3 동료 상담사나 슈퍼바이저의 차별적인 언행을 경험함(변동적). 상담자인 참가자들은 주변의 차별 중에서도 동료 상담사나 슈퍼바이저의 차별로 인해 문제의식을 느꼈다고도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슈퍼바이저가 내담자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발언을 하거나, 학회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는 것을 듣는 등의 경험을 했다고 한다.

“(…중략) 제 내담자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애는 어떤 가족 역동으로 인해서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어떤 성격적 결합에 의해서 이런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성소수자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뭐... 많죠. 학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교수님이 올라와서 설명을 하는데 ‘동성애가 어찌고 요새 유행이라니까’ 이런 표현을 썼다던가. 끝도 없죠. (웃음)” <참가자2>

1.3 소수자 내담자와의 상담 경험을 통해

관심을 가짐(전형적). 참가자들은 상담을 통해 소수자를 만나면서 사회정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였다. 세부적으로 내담자의 주 호소가 단순히 개인의 심리에서 오는 게 아닌 사회구조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회정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깨닫기도 했으며, 내담자들의 경험을 들으며 사회정의의 중요성을 깨닫기도 했다고 한다. 이 범주는 두 가지 하위 범주로 세분화되었다.

1.3.1 내담자 문제의 사회 구조적 원인을 인식하고, 기존 상담 틀의 한계를 인식함(변동적). 소수자 내담자와 상담하게 되었을 때, 참가자들은 상담 장면 안에서만 돕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보고하였다.

“제가 수련받을 때 첫 사례가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사례였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초심 상담자였고, 당시 사례경험이 제게 주었던 것은 내가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로서 내담자와 함께 내담자의 문제해결과 성장을 위해서 상담실이라는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구나.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고 상담 장면에서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던 내담자가 상담실을 벗어나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중략) 위기들에 많이 노출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굉장히 상담자로서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참가자4>

1.3.2 내담자들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관심을 가지게 됨(전형적). 참가자들은 소수자 내담자들이 겪었던 차별, 억압, 폭력 등의 경험에 대해서 들으면서 사회정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됐다고 보고했다.

“뭐 내담자들 중에서도 대학생 내담자들은 대학 내에서 경험하는 차별이나 폭력들 얘기하고. 그 외에도 여성 내담자들이 대다수인데 여성 내담자들이 겪었던, 예를 들면 원치 않는 임신과 중절 이런 과정 속에 겪었던 거라던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사건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접근을 저도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관심을 또 스스로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참가자2>

영역 2: 사회정의 옹호역량 증진 과정

본 영역에서는 사회정의에 관심을 갖게 된 이후 옹호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에 관한 범주가 도출되었다. 참가자들은 사회정의 옹호역량 증진을 위해 지식을 더욱 함양하려 노력했고, 멘토 역할을 해준 인물로부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안내 받으며, 개인적으로도 성찰을 거치며 상담 현장과 상담 장면 밖에서도 사회정의를 실행해 왔다고 보고했다.

2.1 사회정의 옹호역량 증진을 위한 지식 추구함(일반적). 참가자들은 사회정의 옹호를 위해 더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고 느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식을 쌓아왔다고 보고하였다. 교육 프로그램들 중 사회정의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가거나, 사회정의 관련 주제로 공부나 연구를 실시하기도 했으며, 소속된 기관에서 사회정의 관련 교육을 받기도 했다. 본 범주는 3가지 하위 범주로 나뉘었다.

2.1.1 적극적으로 사회정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감(변동적). 참가자들은 사회정의 관련 주제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때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고 하였다.

“여성의 전화 이런 데에서 강의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내가 관심 있는 주제는 꼭 참여해서 듣는다든지,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하기는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뭐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또 얘기를 좀 나눈다든지. 뭐 하면서, 그래도 관심 있는 주제는 웬만하면 찾아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참가자6>

2.1.2 적극적으로 사회정의 관련 공부나 연구를 함(일반적). 교육을 찾아가는 것 외에도 참가자들은 더 배울 필요를 느끼는 사회정의 주제 관련 공부를 더 하거나 연구를 실시했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면 계속 새로운 내담자를 만나니까요. 성소수자 안에서도 뭐 Asexual 이라던가, Asexual aromantic 관련해서도 내담자들을 만나면 또 공부해야 되는 필요를 느끼고, 찾아보게 되고, Transition 관련 과정들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예를 들어 노인 내담자들을 만나면 노인 관련해서도 찾아보고, 장애 관련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를 느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보게 되는 그런 게 있죠.” <참가자2>

2.1.3 소속 기관에서 사회정의 관련 교육을 받음(전형적). 참가자 본인이 먼저 교육을 찾아가거나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소속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통해 점차 지식을 쌓기도 했다.

“제가 지금 일하는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듯이 이런 교육을 통해 들으니까, 아하 청소년 성 문화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시간제 상담사로 일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교육을 듣는데, (중략) 내가 되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들이 사실은 되게 문제가 많았구나 하는 것들, 이런 교육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질문들이 생겼지...” <참가자6>

2.2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멘토에게 방향성을 안내 받음(일반적). 참가자들은 이미 사회정의 옹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거나 사회정의에 관해 먼저 관심을 갖고 공부해온 사람들과 교류하며 배우기도 하였다.

“상담자보다도 주변의 활동가들이나 다른 전공에 있는 사람들, 여성학이라던가 사회학이라던가 인류학이라던가 여기 있는 사람들과도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왜냐면 그 분들은 개입을 하는 입장이 아니다보니까 자기들이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도 하고 저도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예 그런 시각을, 결국 나는 내담자를 만날 때 어떻게 하는 게 더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구요. 활동가 중에서도 오래 활동하신 분들에게서 또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런 분들 영향을 받기도 했었던 것 같고.” <참가자2>

2.3 개인적 성찰 과정을 거침(전형적). 참가

자들은 자기 신념과 가치관을 되돌아보는 과정도 거쳤다고 보고했다. 자신에게도 편견이 많다는 걸 깨닫고 편견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보고하였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가치관들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기독교 배경에서 오래 자랐고, 내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알게 모르게 있는 편견들이 되게 많다는 걸 상담하면서 느끼고 그래서 이것들이 좀 어떻게 형성이 됐고 이게 맞나 아니냐를 고민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또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게 돼서, 그런 시간들, 대학원 시간 속에서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참가자3>

2.4 상담 현장에서 사회정의적 관점으로 개입함(전형적). 참가자들은 사회정의 옹호역량을 증진하는 과정에서 상담을 하면서도 사회정의 관점에 기반하여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상담 접근법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담자가 필요한 외부 자원과 연결해주었다고 보고하였다.

“필요한 걸 같이 찾고, 내담자가 가진 문제가 조직이나 사회의 구조 문제라면 ‘너의 문제가 아니야’라고 같이 얘기하고 그걸 바꿀 수 있는 대안을 같이 찾아보고, 또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걸 연계해주고, (중략) 그것도 사회정의 관점에서 보면 상담자의 역할일 수도 있고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참가자8>

2.5 상담 밖 사회정의 옹호 활동에 직접 참여함(일반적). 참가자들은 상담 장면 밖에서도 사회정의 옹호 활동에 참여했다고 보고하였다. 옹호 활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동시에 옹호역량을 증진시킬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 본 범주는 두 하위 범주로 세분화되었다.

2.5.1 사회정의 추구를 위한 모임을 개설하거나 참여함(변동적). 참가자들은 자신들과 비슷하게 사회정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사회정의 추구를 위한 모임을 개설하기도 했고, 이미 존재하는 모임에 꾸준히 참여했다고 보고하였다.

“학생 사회에서 인정 받는 공식적인 성소수자 관련 모임을 만들자 라는 그런 것들을 했었고. 그런 모임을 시작을 하며 어... 이 모임들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의 존재를 알리자. 이 성소수자 관련 이슈가 학내에도 존재함을 알리고 그리고 그걸 가지적으로 만들자. 그런 것들을 시작을 했었죠. 대자보를 처음으로 써보고 현수막을 처음으로 걸어보고. 교수님들한테 처음으로 메일도 보내보고. 뭐 이런 활동들을 했었죠.” <참가자2>

2.5.2 사회정의 추구를 위한 대외활동, 캠페인, 집회 등에 참여함(일반적). 참가자들은 상담 밖에서의 대외활동에도 활발히 참가했다고 보고하였다. 참가한 활동들은 정책개발, 법 개정, 제도 기반 마련,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활동이 상담자로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느꼈다고 한다.

“상담 현장에 갈수록 상담만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현장에 있었던 곳들이 상담만 했던 게 아니라 연구도 많이 했었고, 매뉴얼 개발부터 정책개발, 법 개정, 제도적인 기반 마련, 캠페인 등 다양하게 주요하게 해 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정의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참가자4>

영역 3: 사회정의 옹호 추구 과정에서의 어려움

본 영역에서는 사회정의 옹호 활동을 하거나 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등 사회정의 옹호를 추구해오는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에 대한 범주들이 도출되었다. 참가자들은 사회정의 관련 교육, 참고자료, 사람과 같은 자원이 부족하여 옹호 추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옹호 활동을 실천하면서 상담 분야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충돌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개인 내적으로도 한계 등이 보고되었다.

3.1 사회정의 옹호역량 증진을 위한 외부 자원이 부족함(일반적). 참가자들은 옹호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필요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범주는 세 가지 하위 범주로 세분화되었다.

3.1.1 역할 모델이 부족함(전형적). 참가자들은 사회정의 옹호역량 증진 과정에서 자신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어려움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모델이 너무 없었고. 그냥 단순히 지

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자료를 얻기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하고 있는 방향이 맞나, 내가 하고 있는 거가 어떤 건가, 스스로 보기 어려운 거죠. (중략) 모델이 없으니 내가 하고 있는 게 팔다리가 몇 개 달려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뭐라 해야 되죠? 정말 어둠 속에서 더듬는 느낌으로 가는 것들도 어려운 것 같고.” <참가자2>

3.1.2 관련 교육 및 훈련이 부족함(일반적). 참가자들은 사회정의에 대해 배우고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해외 자료를 봐야 될 때가 있었죠. 해외 자료 가이드라인 같은 걸 보고 연구회에서 번역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웠고. (중략)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었고. 학교 안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자료가 너무 없고 그런 게 사실 어려웠죠. 지금은 사실 한국에 자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지만 자료도 사회복지 쪽에서 먼저 나왔고, 그리고 상담 쪽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뭐 진행 중인 걸로 알지만 아직 많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고. 논문도 나오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한계가 있죠.” <참가자2>

3.1.3 역량 개발을 위한 참고 자료가 부족함(전형적). 참가자들은 사회정의 관련 정보 자

체를 구하기가 어려웠다고도 보고했다. 연구, 가이드라인, 사회정의나 사회정의 옹호라는 개념 자체를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었고, 주로 해외 자료를 통해서 그나마 사회정의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상담 관련해서 더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자료가 너무 없었죠. 자료가 없고 물어볼 데도 없고. 슈퍼바이저한테는 말하기 겁나고. 분위기 자체가 이해를 못 받고 있고... (중략) 어쨌든 간에 어딘가에 있는 학회들이 있어서 그래서 너무 가지적으로 자원이든 정보들에 대해서 접하기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해외 자료를 봐야 될 때가 있었죠. 해외 자료 가이드라인 같은 걸 보고 연구회에서 번역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웠고.” <참가자2>

3.2 사회정의 옹호 상담자로서 현장에서 역경을 겪음(일반적). 참가자들은 상담 현장에서 사회정의 옹호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크게 상담 개입 과정에서 구조적인 한계로 인한 어려움과 다른 상담자들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 범주는 두 가지 하위 범주로 세분화되었다.

3.2.1 상담 개입 과정에서 구조적 한계를 느낌(전형적). 참가자들은 소속 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내담자를 사회정의 접근으로 충분히 돕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학교라는 집단의 교사분들이 굉장히 조금 보수적인데다가, (중략)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는, 가급적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냥 서로 좋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타협하고 해서 하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회정의 상담이라는 부분으로 관점을 들면서 하다 보면, 어 사실 일을 좀 크게 뭔가 자꾸 외부로 뭔가 넓히는 상황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학교 내에서는 그게 좀 많이 좀 한계점과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참가자5>

3.2.2 동료 상담자나 슈퍼바이저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경험함(전형적). 참가자들은 다른 상담자들이 사회정의를 지지하지 않는 태도를 경험하면서도 많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했다고 한다.

“나는 도움을 받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개네들의 가치관을 바꿔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그건 잘못된 거니까, 이성애자가 될 수 있도록 상담자가 바뀌줘야 된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 성격이 세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상담도 잘 하시고,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상담자 분이셨는데, 그 분이 말을 하셨을 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가자9>

3.3 차별적이고 보수적인 사회문화와의 충돌을 경험함(일반적). 참가자들은 상담 장면 밖에서도 사회정의 옹호 활동에 참가하면서 사회문화와 충돌한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한국이면 낙인이랑 비난... 뭐 한국이라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실 이걸 드

러내고 활동할 때 제일 힘든 건 반려동물 키운다는 건 커밍아웃은 아닌데 페미니스트라는 건 약간의 커밍아웃처럼 되기도 하더라구요. (중략) 아무래도 페미니스트로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 세계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나쁜 피드백은 없을지언정 내가 하는 행동들을 하나 하나 판단하는?..." <참가자1>

3.4 개인 내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겪음(전형적). 참가자들은 외부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도 겪었지만, 개인 내적으로도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보고한다. 자신의 편견을 자각하면서,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그리고 사회정의 옹호 활동을 하면서 소진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 범주는 3가지 하위 범주로 세분화되었다.

3.4.1 소수자에 대한 나의 편견을 자각함(변동적). 참가자들은 자신에게도 편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도 힘들었다고 보고하였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담자를 만남에 있어서,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뉴스에서 신촌에서 쿼어 축제 뭐 이런 게 열렸었다. 행사 이런 거 진행됐다 이런 뉴스를 봤을 때, 와 저런 것도 하는구나 약간 이랬던, 저도 모르게 게이에 대해서 뭔가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안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것들이 내담자를 만나면서 날날이 까발려진. 저는 최대한 편향 없이 대한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느끼기에는 나도 어느 정도 편견이 있었던 상담자였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가자9>

3.4.2 옳은 방향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겪음(변동적). 참가자들은 사회정의를 추구하면서도 어떤 행동이 옳은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자신이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후에 자신이 선택했던 게 옳았는지 고민이 되기도 했다고 보고하였다.

“성 피해 관련해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중략) 사실 제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애가 그거를 피해를 좀 더 이렇게 잘 극복할 수 있는 주변적인 자원들이 많아서 사실 그걸 더 이상 이렇게 크게 이슈화시키지는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그 말을 딱 들었을 때에는, 아 내가 그거를 뭔가 실천을 하지는 않으면서, 말만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비난을 받았더라는 거가 저 자신에 대해서, 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였을까라는, 그런 좀 딜레마, 이런 거에 좀 빠졌었던 상황이었다는 것 같고.” <참가자5>

3.4.3 사회정의 옹호 과정에서 대리외상 및 소진을 겪음(변동적). 사회정의 옹호 활동을 하면서 참가자들은 필연적으로 피해자들의 경험을 듣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리외상을 경험하기도 했고 많이 소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때 제가 대리 외상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PTSD. 그게 10년 전쯤 인 것 같아요. 그 당시가 제가 그때 일을 했던 게 그 세팅 자체가 일반적인 상담과 좀 달랐어요.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문제가 생기면 학교 요청에 따라서, 피가해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서 개입을 해서 상담도 진행하지만 지금 얘기한 분쟁조정 화해

조정이라는 것을 하는 세팅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가 사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중략) 그러다보니까 제가 완전히 거기 매몰이 돼 있었던 상태라서, 밤에도 요즘 얘기하는 재경험들을 하게 되는거죠. 그때 제가 개입했던 상황들, 그리고 또 혹시나 밤에도 애네들 무슨 일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들이 계속 따라오죠. 그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가자 4>

영역 4: 사회정의의 활동상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

이 영역에서는 활동 시 경험했던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범주들이 도출되었다. 자기 자신에 관한 어려움은 자신의 신념을 성찰하여 해결해보려고 노력했고, 외부의 어려움에 대해선 문제 제기와 설득을 통해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동료와 멘토에게 힘을 얻었고 개인 수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 실행했다고 보고했다.

4.1 자신의 신념과 고정관념 성찰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함(변동적). 참가자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이 어려움이 오진 않았는지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런 문제점들이 항상 있고, 조금 더 거기에도 어쨌든 위계 질서가 있어서, 애길 들어보면 또 문제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들의 말을 맹신하지 말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데에서, 이게 막 흑백 논리 있잖아요 이게 잘못되고 이게 옳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열어 놓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말이 100%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거지 이 사람을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참가자6>

4.2 사회정의의 추구를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설득함(전형적). 참가자들은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했다고 보고하였다.

“학회 수련 수첩이 온라인화 되면서 이제 거기에 성별 란이 남자 여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수기 온라인 수첩 시대에는 내담자 설명을 쓸 때 그냥 빈 칸이었어요 성별이. (중략) 게시판에 올려서 기타라도 하나 만들어 달라. 사실 빈 칸을 만들어주면 더 좋다. (중략) 어쨌든 간에 그렇게 바꿔달라고 시정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첩에 기타 란이 생겼죠.” <참가자2>

4.3 동료 및 멘토와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 힘을 얻음(전형적). 참가자들은 어려운 순간에 자신들과 비슷하게 사회정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연대하면서 힘을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경험을 통해 희망을 얻고, 가능할 땐 도움도 받았다고 한다.

“관심 가지고 찾으시면, 어 이렇게 관심 갖는 사람들이 되게 많네? 라고 하는 측

면들, 지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중략) 희망을 얻기도 하고, 아 내가 앞으로 되게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좀 도움 받고, 같이 갈 사람들은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참가자 6>

4.4 개인적 대처 방안을 탐색하고 실행함(전형적). 참가자들은 어려움을 마주하면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고 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대처했다고 한다. 개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나 기관을 찾아보기도 했다고 보고했다.

“일단 혼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있나? 일단은 자료 수집을 먼저 하고, 내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있나.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녹음을 할 수도 있고 이후를 대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련 기관들을 찾아보거나 자료들을 찾아보거나 이런 걸 하기도 하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제보를 하거나 공식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거고.” <참가자2>

영역 5: 사회정의의 추구 후 삶의 변화

본 영역에서는 참가자들이 사회정의의 추구를 하면서 생긴 변화들에 대한 범주가 도출되었다. 실제로 사회구조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기도 했으며, 참가자들 자신과 주변의 삶이

편안해지면서 참가자 스스로 더 침착하게 문제에 대처하게 되기도 하였다. 또한, 사회정의 옹호에 대해 인식하며 전문적인 기준을 확립했다고도 보고하였다.

5.1 긍정적인 사회 구조적 변화를 야기함(변동적). 참가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변화를 추구한 결과,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적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연대하고, 연대한 거를 실천하고, 실천이 결과가 되었다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급여가 열악했던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고용 안정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거의 이제 안정적으로 거의 이제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되어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담자하고 전문 상담교사하고 있어서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또 전환이 되었고.” <참가자5>

5.2 자신과 주변의 삶이 편안해지고 문제에 더 침착하게 대처하게 됨(전형적). 사회의 변화 외에도 참가자 자신의 삶과 자기 주변인들의 삶이 편안해지는 변화도 있었다고 참가자들은 보고하였다. 이러한 개인 수준의 변화를 겪으며 사회 문제를 대할 때 조금 더 침착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사회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개인의 삶, 개인의 삶에서의 변화를 보고 있는 직업이기도 한지라 그 안에서의 그런 것들을 좀 직접 경험하고 보고 하는 것들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균형을 잡게 된다 말까요? 그래서 좀 더 멀리 보고 균형을 잡고 뭔가... 일회일비 하지 않고 좀 더 이렇게 심지를 굳게 하는 뭔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참가자2>

5.3 사회정의 옹호에 대해 인식하고 전문적인 기준을 확립함(전형적). 참가자들은 사회정의에 대해 배우고 옹호 활동을 해보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겪고 이에 대처도 해보면서 나름대로 전문성이 생긴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정의 관점을 잘 사용할 수 있게도 됐고, 편견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진 것 같으며, 사회정의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노하우도 생기게 된 것 같다고 한다.

“지금 제가 그래도 이쪽 분야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그간의 그런 어려움들, 대처해야 하고, 이런 경험들 속에서 제가 노하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 노하우라고 할 때는 관련 분야에 대해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전문성이 저는 덕분에 좀 생긴 것 같고.” <참가자4>

영역 6: 사회정의 옹호 상담 발전을 위한 제언

이 영역에서는 앞으로 한국 상담 분야에서 사회정의 옹호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들이 범주로 도출되었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사회정의 상담 관련 교육과 연구가 더 필요하며, 상담자들 개인과 상담계 내부의 제도 수준에서 노력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6.1 사회정의 상담 관련 교육 및 연구가 더

필요함(일반적). 참가자들은 사회정의 상담과 옹호 활동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사회정의와 옹호 활동 역시 상담자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생길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대학원 과정과 상담자 재교육에서 사회정의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저는 근본적으로는 대학원 과정에서 사회정의 상담, 옹호 활동 같은 것도 상담자의 영역이라는 교육의 확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 있는 상담자들에 대한 재교육도 있어야 돼요, ‘이것도 상담자의 일이다’라고.” <참가자 8>

6.2 상담자들의 사회정의적 관점에서의 인식과 노력이 필요함(전형적). 참가자들은 상담자 개인들이 사회정의적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상담사들이 조금 개인의 내적인 측면 부분보다도, 조금 외적인 측면에 있어서 개인이 겪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걸 좀 인식하는 상담사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 문제가 제 문제를 바라볼 때에도 사실 되게 다양한 관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 문제가 생긴거지 어느 한 측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건 분명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상담을 하다가도 개인 내적인 측면을 뭔가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그걸로서만 변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참가자6>

6.3 상담계 내부부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전형적). 상담자 개인의 노력 외에도 참가자들은 상담계 내부의 제도도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저는 이 상담자들에 대한 사회문제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하는 분들에 대한 보호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지원, 복지체계도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략) 사회 문제에 대한 분야들이 계속 성장하고, 이 사회 문제들이 조금이나마 해결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종사자들이 이탈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도 관심 가지고, 말로만 ‘추구한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보상, 보호, 지원 이런 것들 것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가자4>

논 의

본 연구는 사회정의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아직 미비한 한국에서 사회정의 옹호 상담을 실천하고 있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정의 옹호역량 발달 과정에서의 경험을 탐색하여 추후 사회정의 옹호 상담 교육과 확산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사회정의 옹호역량이 높고, 암묵적 성 고정관념이 낮은 상담자 9명을 선별하여 심층 면담하고 자료를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QR)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정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사회정의 옹호역량 증진 과정’, ‘사회정의 옹호 추구 과정에서 어려움’, ‘사회정의 활동상의 어려움

에 대한 대처’, ‘사회정의 추구 후 삶의 변화’, ‘사회정의 옹호 상담의 발전을 위한 제언’의 총 6개 영역과 22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영역에서는 참가자들이 사회정의에 관심을 가지게 된 다양한 계기들이 도출되었다. 먼저,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가까운 대인관계에서 비롯된 미시적인 차별부터 강남역 사건과 같은 사회적이고 거시적인 불평등으로 파생된 차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별 경험에 노출되며 느낀 문제의식을 관심의 동기로 보고했다. 이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Caldwell과 Vera(2010)에 따르면 사회적 불평등이나 차별의 경험은 사회 내 억압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민감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상담자가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한다.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소수자 내담자와의 상담 경험을 통해 전통적인 개입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회정의 옹호 상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정신건강 문제들은 그 근본 원인이 외부적인 요소에 있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정안숙, 2015; 최가희, 2018) 내담자 문제에 대한 내적 요인 중심으로 진행되는 전통적인 상담의 한계는 이미 선행연구들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이소연 외, 2018; 임은미 외, 2018; Goodman et al., 2004; Pedersen, Crethar, & Carlson, 2008). 반면, 사회정의 옹호 상담은 내담자의 삶에 가해지는 가난, 차별, 착취, 편견 등 각종 사회 체계적 불평등 요인을 다층적으로 인식하고 개입하기에(임은미, 2017; 최가희, 2018; Lewis et al., 2003; Vera & Speight, 2003) 기존 상담 방식의 한계를 경험한 참여자들이 사회

정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사회 구조적 불평등과 이에 개입하는 기존 상담 방식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확장하며 다문화 민감성을 갖춘 사회정의 옹호 상담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영역의 범주들을 통해 참가자들의 사회정의 옹호역량을 증진시킨 과정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었는데, 참여자 전원이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소속 기관을 통해 사회정의와 관련된 수업을 듣고 연구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식을 추구하며 역량을 증진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사회정의와 관련된 지식 추구는 소수자 내담자와의 작업을 위한 필수 단계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최가희, 2018), 상담자의 자기 효능감을 증가시켜 사회정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민문경, 안현의, 2014; 임은미 외, 2018).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관련 교육을 통해 사회정의 옹호역량을 갖추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은 내담자 역량강화에 힘쓰거나 집회에 참여하는 등 상담실 안에서 사회 정의적 관점으로 개입하며 역량을 키워나갔는데, 이는 상담자의 사회참여와 내담자 역량강화가 사회정의 옹호역량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선행연구 내용과도 맥을 같이한다(임은미, 2017; Neukrug, 2016). 소수자와 관련된 다양한 현장 실습 경험은 타인의 불평등을 관찰하게 하고 사회정의 옹호역량 발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Caldwell & Vera, 2010),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상담자들은 상담실 내외의 각종 불평등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가 본인

의 신념과 편견, 문화적 맥락 등에 대하여 성찰하는 것이 사회정의 옹호역량 증진의 주요 과정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스스로 문화적인 정체성을 이해하려는 자기성찰과 자기 탐색의 노력이 사회정의 개입과 타문화 학습의 기반이 되며, 문화적으로 성숙한 상담자로서의 성장을 돕는다고 주장한 바와 일관되는 결과이다(최가희, 2018; Goodman et al., 2004; Sue, Arredondo, & McDavis, 1992).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회정의 옹호 상담자로 성장하기 위해 정체성과 편견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은 필수적이거나(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3; Constantine, Hage, Kindaichi, & Bryant, 2007), 후술할 ‘사회정의 옹호 추구 과정에서의 어려움’ 영역에서는 자기 탐색을 통해 스스로의 편견을 마주하는 것이 내적 갈등 유발 요소로 보고되기도 했다. 선행연구들에서도 내면의 고정관념 탐색 과정이 죄책감이나 분노 등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소수자 상담의 방해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지속적인 슈퍼비전과 교육,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Glossoff & Durham, 2010; Sue et al., 1982; Sue et al., 2019). 즉, 수련생들은 슈퍼바이저의 피드백과 교육 과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망하며 건강한 자기성찰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윤희, 박성현, 2014). 마지막으로, 참가자 전원이 해외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한 선학이나 국내 활동가 등 사회정의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멘토들에게 지도를 받으며 사회정의 옹호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후술할 ‘사회정의 활동상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 영역에서도 동료 및 멘토와의 연대가 주요하게 언급되었는데, 민문

경, 안현의(2014)의 연구에 따르면 열의를 가지고 적응적으로 사회정의 활동에 참여하는 멘토격 인물들과의 상호작용은 수련생들의 사회정의 활동에 대한 효능감을 키워 준다. 더불어, 이러한 교류는 옹호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 기대를 증가시킴으로써 상담자들의 사회정의 옹호 활동에 도움을 주는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민문경, 안현의, 2014; Bandura, 1997; Miller et al., 2009). 종합해 보면, 더 많은 상담자들이 사회정의 옹호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멘토 및 동료 상담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사회적 지지를 느끼고 자기 효능감을 얻을 수 있도록 연대할 수 있는 구조적 장(field)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영역에서는 사회정의 옹호 추구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어려움이 보고되었다. 이때, 사회정의 옹호를 추구하며 겪은 보수적인 사회문화와의 충돌뿐 아니라 사회정의적 인식이 미비한 상담 현장과 동료 상담자, 혹은 수퍼바이저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난관들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미국에 비해 상담자 역할에 대한 합의가 분명하지 않고 위계적인 한국 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해 경험하는 한국 상담자들의 고충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김지영, 정은선, 2019; 최가희, 2018). 수퍼비전은 상담 심리학의 “핵심적인 교육법(signature pedagogy)”이라 불릴 만큼 상담 수련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Bernard & Goodyear, 2019, p.2), 사회정의 옹호역량이 상담자의 역할로 대두됨에 따라 평등한 수퍼비전 관계 속에서 문화와 차별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사회정의 민감성을 터득하는 과정 또한 강조되고 있다(임은미, 2020; Glossoff & Durham, 2010; Wilcox et al., 2021). 그러나 한

국에서는 사회정의 관점에서의 수퍼비전이 체계적으로 소개되지 않았을 뿐더러 위계적인 수퍼비전 관계에서는 이러한 논의 자체가 힘들다는 점에서(임은미, 2020; Sue et al., 1998) 본 연구의 일부 참여자들이 실망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참가자 전원은 멘토 및 교육 등 외부 자원의 부재로 인한 방향성 혼란을 역량 발달의 어려움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사회정의 관점에서의 수퍼비전은 물론이고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자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 훈련 과정 또한 부족한 실정을 반영한다(강이영, 금명자, 조민희, 2018; 김태선, 신주연, 2020; 임은미, 2020). 특히, 전술한 ‘사회정의 옹호역량 증진’ 영역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련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역량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본 영역에서 참가자들이 교육 및 훈련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현 상담심리학계가 사회정의에 관심을 갖는 상담자들이 관련 지식을 추구하고 역량을 증진해나가기 열악한 환경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 보면, 더 많은 상담자들이 사회정의에 관심을 갖고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의에 대한 관심과 인식 확산을 통해 자유롭게 사회정의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영역으로는 참여자들이 사회정의 옹호 활동을 하며 겪은 어려움에 대처해 나간 다양한 방식이 보고되었다. 먼저, 일부 참가자들은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성찰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문제해결을 시도하였다. 앞선 결과들을 고려하면, 스스로의 편견에 대한 직면은 수련생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켜 사회정의 옹호를 추구하는 과

정에서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으나, 성찰 과정은 사회정의 옹호 상담자로 성장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참가자들은 사회정의 추구를 위해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며 어려움에 대처했다고 응답했다. 사회정의 옹호 상담은 내담자 문제에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인지하여 상담 과정 내에서 개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내 편견과 고정관념 등 다양한 차별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포함한다(Sue et al., 1992). 즉, 사회정의 옹호역량이 높은 상담자들은 내담자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과 억압의 상황에 개입하며, 더 나아가 사회 내 각종 불평등 요소를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옹호 활동 과정에서 스스로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성찰하고, 일상 속에서 차별적 상황을 인식했을 때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실천적 개입 노력을 하는 것이 사회정의 옹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옹호역량을 발달시켜나가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낸다. 즉, 상담자들의 사회정의 옹호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서는 상담자의 자기성찰을 촉진함으로써 다문화 민감성을 함양하고, 일상 속에서 사회정의 옹호를 실천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제안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영역으로는 사회정의를 추구한 뒤 일어난 삶의 변화들이 보고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전문적인 기준을 확립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이 편안해지고 문제에 더 침착하게 대처하게 되어, 개인적인 영역과 전문적인 영역 모두에서 긍

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응답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문화와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갖춘 상담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마친 상담자들은 비판적인 사고와 문화적 지식의 확장을 경험한다고 보고한다(Sue et al., 2019). 또한, 이들은 다양성에 대한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공감 능력이 증가하며,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배우는 등 마음의 시야 또한 확장된다고 하였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7; Sue, 2003). 본 연구의 참가자들도 사회정의 옹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성장과 더불어 개인적으로도 공감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로 대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인 삶에서의 균형과 편안함 또한 경험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사회정의 옹호역량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에서는 사회정의 옹호의 추구가 내담자의 복지 증진 및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을 촉진하고(김미진, 권경인, 2019), 상담역량을 강화할 뿐 아니라(임은미 외, 2018) 상담자 개인의 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회정의 옹호 훈련에 대한 동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여섯 번째 영역에서는 한국에서 사회정의 옹호를 추구해오며 높은 옹호역량을 갖추기까지 일련의 발달 과정을 거친 참가자들이 국내 사회정의 옹호 상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한 점들과 관련된 범주가 도출되었다. 먼저, 참가자들은 국내 상담자들이 사회정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사회정의 옹호 상담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상담자의 역할은 전통적인 과학자-상담자에서 벗어나 사회 정의적 인식을 포함하는 과학자-상담자-옹호자 모델로 확

장되고 있다(Mallinckrodt et al., 2014; Ratts & Greenleaf, 2018). 즉, 상담자들은 필요한 경우 상담소를 벗어나서 내담자의 현실에 뛰어들며 불평등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발달시키고 사회변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상담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장인실, 차경희, 2012; Chang et al., 2009; Lee, 1998). 관련하여, 본 연구의 일부 참가자들은 사회정의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훈련기관과 과정 미비, 불평등한 수련과 수퍼비전 환경, 사회정의 옹호 상담자들을 보호할 안전망 부재 등을 이유로 상담계 내부로부터의 제도적 개선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내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내담자를 돕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트라우마에 노출되며, 반복적인 노출로 인해 소진, 공감 피로, 대리외상 등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영향을 받게 되고(주혜선, 조윤화, 안현의, 2016), 사회정의 활동가들의 경우에는 내담자가 경험하는 사회구조적 억압을 함께 직면하고 극복을 돕는 과정에서 각종 감정적, 신체적 소진을 경험한다(Chen & Gorski, 2015). 즉, 심리상담과 사회정의 활동을 함께 진행하는 사회정의 옹호 상담자의 경우 소진 및 대리 외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욱 높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상담심리학회에서는 사회정의 옹호 활동을 상담심리학자의 주요 영역으로 포함함으로써 상담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및 훈련을 받으며 사회정의 옹호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현 수련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사회정의 상담 관련 교육 및 연구가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이는 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내담자와의 작업을 위해서는 다문화 및 사회정의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Sue와 동료들의 주장(1992)과도 유사한 것으로, 사회정의 옹호 상담의 확산을 위해 사회정의 옹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연구는 사회정의 인식이 미비한 환경 속에서도 높은 사회정의 옹호역량을 갖춘 상담자들이 역량을 발달시켜 온 과정에서의 경험을 질적으로 탐색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정의 옹호에 관심을 갖고 역량을 함양하려는 상담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 상담심리학회에 사회정의 인식을 보다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국내 사회정의 인식의 확산 및 후학 양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 가운데 교육 및 수퍼비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참가자 전원이 제안한 사회정의에 대한 교육은 상담자들의 효능감 증진과 자아 성찰, 내적인 어려움 극복과 적절한 개입 활동 등에 도움을 주며 아직 사회정의를 접해보지 못한 수련생들에게도 관심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특히, 사회정의 옹호가 점차 상담자 역량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김미진, 권경인, 2019), 상담자들에게 단순히 다문화와 관련된 지식적 유능함을 넘어, 내담자와의 관계 중심적 기질인 “다문화 지향성(Multicultural Orientation)”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Davis et al., 2018). 다문화 지향성이란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치유적인 관계를 위해 내담자의 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존중하는 이타적인 자세로 실재하며, 문화적인 신호에 민감하고 수용적인 자세로 반응하고, 문화에 대한 다양한 담화에 편안하게 임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으로(Owen, 2013), 상담 과정의 효율과 성과에 궁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avis et al., 2018). 특히, 다문화 지향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핵심 태도인 문화적 겸손(cultural humility)은 선행연구에서 상담자의 사회정의 옹호 태도와 관련이 있고, 미묘한 차별의 감소에 기여하는 등 상담 현장 내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Zhang et al., 2021). 개개인의 정체성이 다양화됨에 따라 사회 내 복잡하게 얽힌 문화와 차별, 억압과 특권의 역동을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현시점에서(Grzanka, Santos, & Moradi., 2017) 다문화 지향성은 수련생을 포함한 많은 상담자들이 함양해야 하는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상담심리학회에서는 상담자들이 다문화 지향적인 태도를 갖추 수 있도록 스스로의 편견과 가치관에 대한 꾸준한 성찰을 촉진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사회정의 관점에서의 상담 지식 습득 및 사회 구조적 차별에 대한 민감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담 내 적절한 문화적 개입의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실습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Watkins et al., 2019).

특히, 다문화 지향성과 사회정의 옹호역량을 갖춘 상담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슈퍼바이저들이 다문화와 사회정의를 이해하고, 이를 슈퍼비전 관계에 모델링할 수 있어야 한다(Watkins et al., 2019).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저 상담자뿐 아니라 결국 내담자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슈퍼바이저의 다문화 지향성은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다문화 지향성의 본보기가 된다(Watkins et al., 2019). 이처럼 사회정의 관점에서의 멘토, 특히 슈퍼바이저는 보수적이고 차별적인 사회문화와 충돌한 상황이나 개입 과정에서 방향성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

정의 옹호 상담자 및 수련생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민문경, 안현의, 2014).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 연구에서 역할 모델의 부재와 슈퍼바이저의 차별적 발언에 대한 실망감 등이 사회정의 옹호역량의 증진 및 활동의 어려움으로 보고된 것은 아직 국내 상담심리학회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문화적 민감성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슈퍼바이저들은 다문화 및 사회정의 옹호역량의 발달을 위해 상담자들이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드러내고 성찰하는 과정이 중요함을 인지하고(Zhu, Luke, & Bellini, 2021), 평가 관계로 인한 슈퍼비전 자체의 본질적인 위계구조 속에서도 상담자들이 자아개방과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슈퍼비전 분위기 형성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임은미(2020)가 제시한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 슈퍼비전의 통합방안을 참고하여 상담자들이 문화적 태도와 이해, 능력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 현장에서 옹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높은 사회정의 옹호역량과 낮은 암묵적 성 고정관념을 가진 9명의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등의 방식을 통해 다수의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정의 옹호 추구 및 역량 증진 과정과 이에 따른 어려움 및 대처 과정, 그리고 사회정의 옹호 상담 확산을 위한 제언 등을 양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통해 사회정의 옹호역량이 높은 상담자를 선발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동료 추천 혹은 학계 내 추천 등 더욱 다양화된 방식을 통해 관련 전문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담자들의 사회정의 옹호역량 훈련 과정이나 발달 단계에 대한 종단연구를 실시하여 상담자들이 각 단계에서 경험한 어려움, 극복 방법 및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준 요인 등을 알아보고, 연령과 상담경력 등이 이러한 경험에 미치는 영향 또한 탐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참가자들의 상담 경력은 3개월에서 15년, 연령은 24세에서 50세로 다양했으며, 연령에 따른 답변 경향이 일부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30대 참가자들은 교육 및 수업을 통해 사회정의를 접하고, 차별을 경험하거나 목격하여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보고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사회정의 옹호 역량 발달 과정에서 개인 내적인 한계로 인한 어려움은 적게 보고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40-50대 참가자들은 기존 상담들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개인 내적인 한계로 인한 어려움을 더 많이 보고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상담경력뿐만 아니라 사회정의 옹호 관련 교육의 증가 시기 등과 연관이 있을 수 있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과 상담경력이 사회정의 옹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사회정의 인식이 미비한 수퍼바이저나 동료 상담자들의 발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을 감안할 때, 국내 사회정의 옹호 상담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옹호역량이 낮은 상담자 혹은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식 변화와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정의 옹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일부 사회정의 옹호 활동(예, 사회구조 변화를 위한 사회참여 활동)은 상담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역할로 다가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Cummings과 O'Donohue(2005)는 사회정의 옹호 활동 중 사회구조 변화를 위한 사회참여 활동이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진보적인 성격을 띠고 편향적이게 되면, 정치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중시하는 상담자들은 이러한 활동에 동의하기 어려워지면서 사회정의 옹호활동을 상담자 역할로 수용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한국 상담심리학 분야에서 사회정의 인식 확산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특성을 띠는 활동이 편파적으로 강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정의 옹호 활동에 있어서 상담자들 간 가치관의 차이에 관하여 많은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사회정의 옹호 활동을 상담자 역할로 통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앞으로 상담심리사가 임상심리사나 사회복지사와 차별화되면서도 독자적인 정체성을 구축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상담심리학자들과 실무자들의 합의를 거쳐 사회정의 옹호 활동이 국내 상담심리 분야의 맥락에 맞게 정착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이영, 금명자, 조민희 (2018). 상담 수련과정에서 비윤리 경험의 실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495-513.
- 고윤희, 박성현 (2014).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 자기성찰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26(4), 805-839.
- 구자란 (2010). 상담자의 사회정의옹호에 따른 소수 및 다수집단 내담자에 대한 인상형성.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경인, 양정연 (2013). 상담학 분야의 질적연구 동향분석(2000년~2012년). 상담학연구, 14(6), 3871-3893.
- 김미진, 권경인 (2019). 상담자의 사회정의 옹호역량과 상담자 발달수준, 작업동맹 그리고 상담성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20(2), 67-87.
- 김지영, 정은선 (2019). 사회정의 옹호상담을 적용한 상담자 자기옹호에 관한 고찰. 상담학연구, 20(4), 1-17.
- 김태선, 신주연 (2020). 다문화 시대의 상담자 교육: 비판적 의식과 상호교차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2), 667-692.
- 민문경, 안현의 (2014). 사회 인지 관점에 따른 사회 정의 관심과 실천 모형의 검증: 국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2), 133-154.
- 손인서, 김승섭 (2015). 한국의 차별경험과 건강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보건사회연구, 35(1), 26-57.
- 이소연, 서영석, 김재훈 (2018). 사회정의에 기초한 진로상담 및 직업상담: 상담자 역할과 상담자 교육에 대한 시사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515-540.
- 임은미 (2015). 학교장면에서의 옹호상담 방안 탐색. 교육학연구, 53(3), 119-140.
- 임은미 (2017). 한국 상담자를 위한 사회정의 옹호역량 척도(SJACS-K)의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8(6) 17-36.
- 임은미 (2020). 한국 상담자의 슈퍼비전을 위한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 슈퍼비전의 통합방안 탐색. 상담학연구, 21(5), 27-46.
- 임은미, 구자경 (2019).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 서울: 학지사.
- 임은미, 강혜정, 구자경 (2018). 일반 상담역량, 다문화 상담역량, 사회정의 옹호 상담역량의구조적 관계 및 잠재집단 탐색. 상담학연구, 19(5), 209-232.
- 장인실, 차경희 (2012). 한국 다문화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Bennett 이론에 근거하여. 한국교육학연구, 18(1), 283-302.
- 정안숙 (2015). 현대한국사회에서 공동체심리학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3), 667-683.
- 정지선 (2020). 다문화 및 사회정의 상담을 위한 상담자 교육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225-248.
- 주은선, 이현정 (2010).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 상담 관련 종사자들의 현장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817-846.
- 주혜선, 조윤희, 안현의 (2016). 정신건강전문가용 간접 트라우마 관리 도구(STCI)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579-613.
- 최가희 (2018). 사회정의와 상담심리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2), 249-271.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3). Guidelines on multicultural education, training, research, practice, and organizational change for psychologists. *American Psychologist*, 58(5), 377-402.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7). *Multicultural guidelines: An ecological approach to*

- context, identity, and intersectionality*. Retrieved from <https://www.apa.org/about/policy/multicultural-guidelines>
- Bandura, A. (1997). The anatomy of stages of change.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12*(1), 8-10.
- Bernard, J. M., & Goodyear, R. K. (2019). *Fundamentals of clinical supervision* (6th ed.). NY: Pearson.
- Brady-Amoon, P. (2011). Humanism, feminism, and multiculturalism: Essential elements of social justice in counseling, education, and advocacy. *The Journal of Humanistic Counseling, 50*(2), 135-148.
- Caldwell, J. C., & Vera, E. M. (2010). Critical incidents in counseling psychology professionals' and trainees' social justice orientation development.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4*(3), 163-176.
- Chang, C. Y., Hays, D. G., & Milliken, T. F. (2009). Addressing social justice issues in supervision: A call for client and professional advocacy. *The Clinical Supervisor, 28*(1), 20-35.
- Chen, C. W., & Gorski, P. C. (2015). Burnout in social justice and human rights activists: Symptoms, cause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Human Rights Practice, 7*(3), 366-390.
- Cokley, K. O. (2005). Racial(ized) Identity, ethnic identity, and Afrocentric values: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hallenges in understanding African American ident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517-526.
- Constantine, M. G., Hage, S. M., Kindaichi, M. M., & Bryant, R. M. (2007). Social justice and multicultural issues: Implications for the practice and training of counselors and counseling psychologis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5*(1), 24-29.
- Crethar, H. C., Rivera, E. T., & Nash, S. (2008). In search of common threads: Linking multicultural, feminist, and social justice counseling paradigm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6*(3), 269-278.
- Cummings, N. A., & O'Donohue, W. T. (2005). Psychology's surrender to political correctness. In R. H. Wright & N. A. Cummings. (Eds.) *Destructive Trends in Mental Health: The Well-intentioned Path to Harm* (pp. 3-27). NY: Routledge.
- Davis, D. E., DeBlaere, C., Owen, J., Hook, J. N., Rivera, D. P., Choe, E., Van Tongeren, D. R., Worthington, E. L., Jr., & Placeres, V. (2018). The multicultural orientation framework: A narrative review. *Psychotherapy, 55*(1), 89-100.
- Glosoff, H. L., & Durham, J. C. (2010). Using supervision to prepare social justice counseling advocate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50*(2), 116-129.
- Goodman, L. A., Liang, B., Helms, J. E., Latta, R. E., Sparks, E., & Weintraub, S. R. (2004). Training counseling psychologists as social justice agents: Feminist and multicultural principles in ac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2*(6), 793-836.
- Grzanka, P. R., Santos, C. E., & Moradi, B. (2017). Intersectionality research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4*(5), 453-457.
-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 E. N., Hess, S. A.,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96-205.
-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N.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4), 517-572.
- Ivey, A. E., Ivey, M. B., Myers, J. E., & Sweeney, T. J. (2005). *Developmental counseling and therapy: promoting wellness over the lifespan*. Boston, MA: Lahska Press.
- Kearney, L. K., Draper, M., & Barón, A. (2005). Counseling utilization by ethnic minority college stude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1*(3), 272-285.
- Lee, C. C. (1998). Counselors as agents for social change. In C. C. Lee & G. R. Walz. (Eds.) *Social Action: A Mandate for Counselors* (pp. 3-14).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Lee, C. C. (2007). *Social justice: A moral imperative for counselors*. Retrieved from https://www.counseling.org/docs/default-source/library-archives/professional-counselor-digest/acapcd-07.pdf?sfvrsn=37be412c_4
- Lewis, J. A., Arnold, M. S., House, R., & Toporek, R. L. (2003). *ACA advocacy competencies*. Retrieved from http://www.counseling.org/docs/competencies/advocacy_competencies.pdf
- Mallinckrodt, B., Miles, J. R., & Levy, J. J. (2014). The scientist-practitioner-advocate model: Addressing contemporary training needs for social justice advocacy.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8*(4), 303-311.
- Meyer, I. H. (2003). Prejudice, social stress, and mental health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opulations: Conceptual issues and research evidence. *Psychological Bulletin, 129*(5), 674-697.
- Miller, M. J., Sendrowitz, K., Connacher, C., Blanco, S., de la Peña, C. M., Bernardi, S., & Morere, L. (2009). College students' social justice interest and commitment: A social-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4), 495-507.
- Neukrug, E. (2016). *The world of the counselor: an introduction to the counseling profession* (5th Ed.). Boston, MA: Cengage Learning.
- Owen, J. (2013). Early career perspectives on psychotherapy research and practice: Psychotherapist effects, multicultural orientation, and couple interventions. *Psychotherapy, 50*(4), 496-502.
- Owen, J., Tao, K., & Rodolfa, E. (2010). Microaggressions and women in short-term psychotherapy: initial eviden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8*(7), 923-946.
- Pascoe, E. A., & Smart Richman, L. (2009).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5*(4), 531-554.
- Pedersen, P. B., Crethar, H. C., & Carlson, J. (2008). *Inclusive cultural empathy: making relationships central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st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onterotto, J. G., Utsey, S. O., & Pedersen, P. B. (2006). *Preventing prejudice: A guide for counselors, educators, and parent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Ratts, M. J. (2009). Social justice counseling: Toward the development of a fifth force among counseling paradigms. *The Journal of Humanistic Counseling*, 48(2), 160-172.
- Ratts, M. J., & Greenleaf, A. T. (2018). Counselor-advocate-scholar model: Changing the dominant discourse in counseling.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46(2), 78-96.
- Rice, K., Girvin, H., Frank, J., & Foels, L. (2016). The learning institute: Promoting social justice advocacy within a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Teaching in Social Work*, 36(4), 380-389.
- Ridley, C. R. (2005). *Overcoming unintentional racism in counseling and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to international intervention*.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Rudman, L. A., Greenwald, A. G., & McGhee, D. E. (2001). Implicit self-concept and evaluative implicit gender stereotypes: Self and ingroup share desirable trai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9), 1164-1178.
- Santiago-Rivera, A. L., Altarriba, J., Poll, N., Gonzalez-Miller, N., & Cragun, C. (2009). Therapists' views on working with bilingual Spanish-English speaking clients: A qualitative investigatio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0(5), 436-443.
- Schmitt, M. T., Branscombe, N. R., Postmes, T., & Garcia, A. (2014). The consequence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for psychological well-being: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0(4), 921-948.
- Schnierle, J., Christian-Brathwaite, N., & Louisias, M. (2019). Implicit bias: What every pediatrician should know about the effect of bias on health and future directions. *Current Problems in Pediatric and Adolescent Health Care*, 49(2), 34-44.
- Steele, J. M. (2008). Preparing counselors to advocate for social justice: A liberation model.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8(2), 74-85.
- Sue, D. W. (2003). *Overcoming our racism: The journey to liber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Sue, D. W., Arredondo, P., & McDavis, R. J. (1992).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and standards: A call to the profess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0(4), 477-486.
- Sue, D. W., Bernier, J. E., Durrant, A., Feinberg, L., Pedersen, P., Smith, E. J., & Vasquez-Nuttall, E. (1982). Position paper: Cross-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0(2), 45-52.
- Sue, D. W., Carter, R. T., Casas, J. M., Fouad, N. A., Ivey, A. E., Jensen, M., LaFromboise, T., Manese, J. E., Ponterotto, J. G., & Vasquez-Nuttall, E. (1998).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Sue, D. W., Sue, D., Neville, H. A., & Smith, L. (2019).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Sumner, A. D. (2013). *A study of peer-nominated exemplars of social justice commitment in counseling*

- and psychology* (Order No. 3596363). Available from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Global. (1447279001). Retrieved from <https://www.proquest.com/dissertations-theses/study-peer-nominated-exemplars-social-justice/docview/1447279001/se-2?accountid=13942>
- Toporek, R. L., Lewis, J. A., & Crethar, H. C. (2011). Promoting systemic change through the ACA advocacy competenci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7*(3), 260-268.
- Toporek, R. L., & Williams, R. A. (2006). Ethics and professional issues related to the practice of social justice counseling psychology. In R. L. Toporek, L. Gerstein, N. Fouad, G. Roysircar, & T. Israel. (Eds.) *Handbook for Social Justice in Counseling Psychology: Leadership, Vision, and Action* (pp. 17-35).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Vera, E. M., & Speight, S. L. (2003). Multicultural competence, social justice, and counseling psychology: Expanding our rol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1*(3), 253-272.
- Watkins, C. E. Jr., Hook, J. N., Owen, J., DeBlaere, C., Davis, D. E., & Callahan, J. L. (2019). Creating and elaborating the cultural third: A doers-doing with perspective on psychoanalytic supervision.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analysis, 79*(3), 352-374.
- Watkins, C. E. Jr., Hook, J. N., Owen, J., DeBlaere, C., Davis, D. E., & Van Tongeren, D. R. (2019). Multicultural orientation in psychotherapy supervision: Cultural humility, cultural comfort, and cultural opportunitie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72*(2), 38-46.
- Wilcox, M. M., Drinane, J. M., Black, S. W., Cabrera, L., DeBlaere, C., Tao, K. W., Hook, J. N., Davis, D. E., Watkins, C. E., & Owen, J. (2021). Layered cultural proc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orientation and satisfaction with supervision. *Training and Education in Professional Psychology*. Advance online publication.
- Zhang, H., Watkins, C. E., Hook, J. N., Hodge, A. S., Davis, C. W., Norton, J., Wilcox, M. M., Davis, D. E., DeBlaere, C., & Owen, J. (2021). Cultural humility in psychotherapy and clinical supervision: A research review.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Research, 00*, 1-10.
- Zhu, P., Luke, M., & Bellini, J. (2021). A grounded theory analysis of cultural humility in counseling and counselor educat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60*(1), 73-89.

원 고 접 수 일 : 2021. 09. 06

수정원고접수일 : 2021. 11. 11

게재결정일 : 2022. 02. 09

A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of South Korean Counselors' Experiences in Social Justice Advocacy Competency Development

Jaebok Lee¹⁾ Sojung Jang²⁾ Youngshin Kim³⁾
Mok Min Nam⁴⁾ Hun Je Jo⁵⁾ Sojung Lee⁶⁾ Kyu Jin Yon⁷⁾

¹⁾⁴⁾⁵⁾So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 Master's Degree

²⁾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of Psychological and Behavioural Science / Master's Degree

³⁾So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 Master's Student

⁶⁾So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 Doctoral Student

⁷⁾So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 Professor

This study used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o explore South Korean counselors' experiences in developing social justice advocacy competencies. A semi-structured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9 counselors with strong advocacy competencies and low implicit gender stereotypes. Six domains with 22 categories and 18 subcategories emerged. The domains were "becoming interested in social justice," "developing advocacy competencies," "difficulties while pursuing social justice," "coping with difficulties," "changes in life after pursuing social justice," and "suggestions for future social justice oriented counseling." After finding an interest in social justice through diverse experiences, participants developed their advocacy competencies via seeking knowledge, practicing social justice, self-reflecting, and receiving guidance from mentors. Results also revealed that self-reflecting, publicizing social justice issues, and interacting with colleagues helped participants overcome various in/external difficulties along the way. Participants reported that advocating for social justice resulted in changes in both society and their personal lives.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social justice, social justice advocacy counseling, social justice advocacy competencies, multi-cultural counsel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